

하이록코리아 (013030)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5,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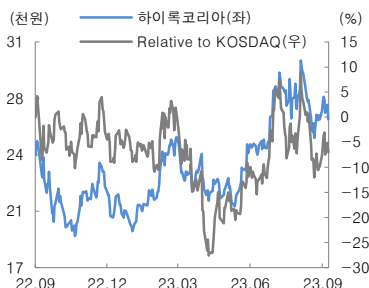
26,000

(23.09.12)

스몰캡업종

KOSDAQ	898.04
시가총액	3,368억원
시가총액비중	0.08%
자본금(보통주)	68억원
52주 최고/최저	29,850원 / 18,9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4억원
외국인지분율	27.19%
주요주주	문휴건 외 7 인 36.48% 베어링자산운용 외 2 인 10.2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0	6.7	14.2	6.5
상대수익률	-8.5	5.3	0.2	-7.8



물 들어오는 해양 투자

- 에너지 자립과 안보 우려가 해양 부문 투자로 이어지는 중
- 멕시코만, 남미, 서아프리카 지역 위주로 해양 투자 이뤄지는 중
- 해양플랜트 성장 + 국내 조선사 수주 -> 하이록코리아 수혜 전망

사우디 감산 + 피크 셰일 우려가 불러온 해양 르네상스

원유 및 가스의 주요 생산지역은 미국, 사우디, 러시아와 세계 생산량의 40% 수준에 이릅니다. 사우디의 감산, 미국의 피크 셰일 우려는 에너지 자립과 안보적 측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양 부문 투자의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중

낮은 BEP + 탄소배출량

Rystad에 따르면, 신규 원유 생산에 해양 부문은 낮은 BEP와 낮은 탄소배출량을 기록 중. 이는 모듈화 등 비용 효율화에 따른 것

멕시코만, 남미, 서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일부 지역은 현재 신규 시추의 7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심해, 부유선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

Shell과 BP 등 전통 에너지 업체들의 신재생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늦춰짐에 따라 기존 전통 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가 중. IEA에 따르면, 23년 글로벌 업스트림 투자금액은 \$ 528B에 15년 이후, 최대치 예상됨

국내 조선사 해양플랜트 수주 증가 전망

조선 3사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는 23년 50억불 -> 24년 73억불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과거 200억불에 달했던 해양부문 신규 수주에 비하면, 적은 물량이지만, 16년 ~ 22년까지 해양 프로젝트 신규 수주가 거의 전무할 정도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양 플랜트 부문의 회복세가 나타남.

글로벌 해양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조선사의 해양부문 수주는 하이록코리아의 해양부문 매출로 이어질 것.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2020A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1,382	1,467	1,829	1,976	2,143
영업이익	162	189	407	488	557
세전순이익	102	260	456	551	620
총당기순이익	65	195	344	430	484
지배지분순이익	53	195	339	405	456
EPS	411	1,515	2,634	3,127	3,543
PER	32.7	11.1	7.8	8.4	7.4
BPS	24,224	25,318	27,705	31,634	34,814
PBR	0.6	0.7	0.9	0.8	0.8
ROE	1.6	5.8	9.4	10.3	10.6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하이록코리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단위: 억원, %)

구분	3Q22	2Q23	3Q23(F)					4Q23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34	496	511	511	17.6	3.0	496	512	-5.2	0.2
영업이익	102	154	111	112	9.8	-26.9	125	110	-25.8	-2.1
순이익	117	137	81	87	-26.0	-36.6	81	57	-18.9	-34.4

자료: 하이록코리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연간 실적 추정 변경

(단위: 억원, 원, %, %p)

	수정전		수정후		변동률	
	2023F	2024F	2023F	2024F	2023F	2024F
매출액	1,976	2,084	1,976	2,143	0.0	2.8
판매비와 관리비	280	292	262	268	-6.7	-8.1
영업이익	487	521	488	557	0.4	6.9
영업이익률	24.6	25.0	24.7	26.0	0.1	1.0
영업외손익	33	33	63	63	90.6	90.5
세전순이익	520	554	551	620	6.1	11.9
지배지분순이익	369	393	405	456	9.8	15.8
순이익률	19.8	20.0	21.8	22.6	1.9	2.5
EPS(지배지분순이익)	2,849	3,059	3,127	3,543	9.8	15.8

자료: 하이록코리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 다시 돌아온 해양플랜트의 시간

사우디의 감산 + 피크 셰일우려 => 해양 투자

원유 생산 1,2위 국가의 공급 지속성 의문 = 해양부문 투자 증가

사우디의 감산과 미국의 피크셰일에 대한 우려는 해양부문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EIA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22년 기준 원유 생산량 점유율은 각각 20%, 12%에 달한다.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세 국가의 글로벌 점유율은 40%대로 절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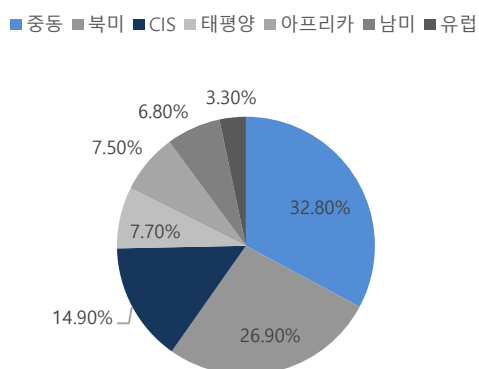
유가가 수요 부진 우려로 하락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적극적인 감산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우디의 적극적인 감산으로 인해, \$80 이상의 높은 수준의 유가가 유지되고 있다.

유가가 불안정한 시기가 지속되다 보니, 에너지의 안보적 측면이 부각받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의 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해왔다. 유럽의 경우,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는 전통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였다. 반면, 영국은 원유,가스의 자립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북해의 시추를 대거 허가했다.

게다가, 대표적인 원유 생산국인 미국의 원유 생산과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략 비축유의 양은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전방 리그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피크 셰일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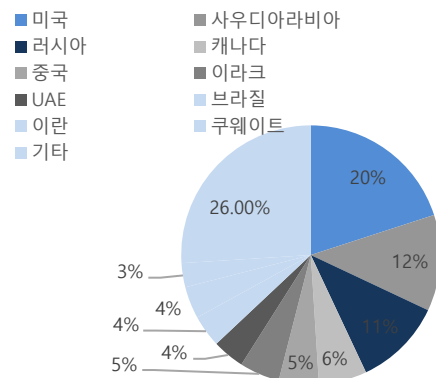
사우디의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 리스크, 미국의 피크 셰일 우려는 해양부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브라질이 있다. 브라질의 원유 생산은 해양 - 심해 부문이 대부분인데, 원유 공급 부족이 상당히 이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투자가 해양 부문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2022년 지역별 원유 생산 점유율



자료: Statist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 2022년 기준

그림 2. 2022년 국가별 원유 생산 점유율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 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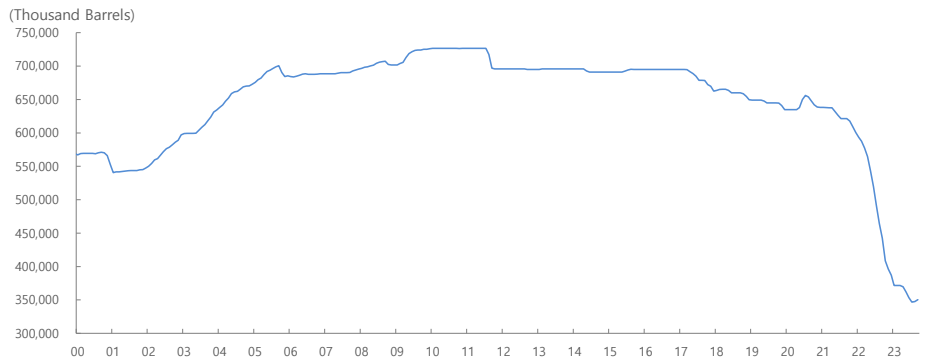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국가 원별 원유 생산량

(단위: bbd/, \$)

	USA	Saudi	Russia	합산 생산량	유가 (우)
2022-03-01	11,655	10,300	10,608	32,563	100.2
2022-04-01	11,628	10,441	9,643	31,712	104.6
2022-05-01	11,595	10,538	9,788	31,921	114.6
2022-06-01	11,816	10,646	10,298	32,760	105.7
2022-07-01	11,800	10,815	10,336	32,951	98.6
2022-08-01	11,975	11,051	10,227	33,253	89.5
2022-09-01	12,268	11,041	10,252	33,561	79.4
2022-10-01	12,381	10,957	10,227	33,565	86.5
2022-11-01	12,375	10,468	10,377	33,220	80.5
2022-12-01	12,101	10,435	10,352	32,888	80.4
2023-01-01	12,462	10,453	10,327	33,242	80.1
2023-02-01	12,483	10,450	10,477	33,410	77.0
2023-03-01	12,696	10,464	10,177	33,337	75.6
2023-04-01	12,615	10,461	10,077	33,153	76.7
2023-05-01	12,662	9,959	-	-	68.0
2023-06-01	12,844	9,956	-	-	70.6
2023-07-01	-	9,013	-	-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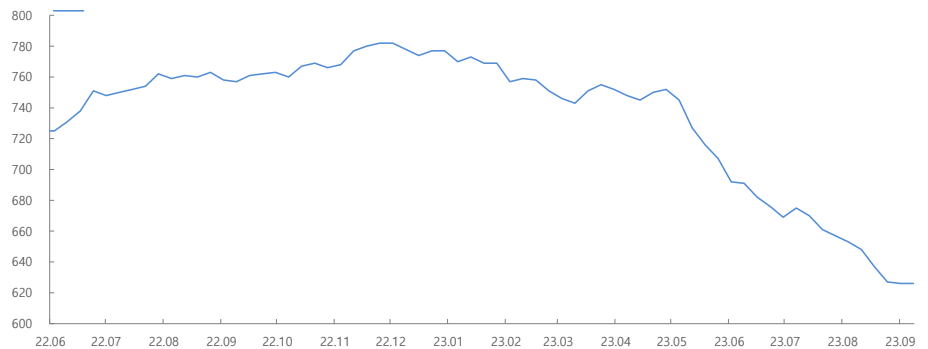
자료: Trading Economic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00년도 이후, 미국 SPR 추이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22년 이후, 미국 리그 수 추이



자료: Bakerhug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낮은 BEP Level + 탄소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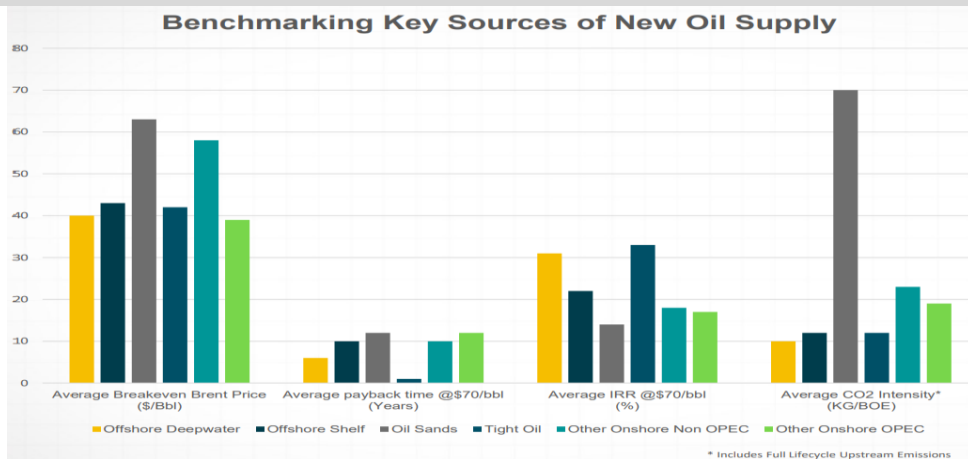
낮은 BEP + 낮은 탄소 배출량

해양부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낮은 BEP 레벨과 낮은 탄소배출량에도 기인한다. Rystad에 따르면, 신규 유정에 대하여 해양부문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도 탄소배출량과 신규 유정의 BEP 레벨에 있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원유, 가스 시장의 흐름은 BRICS발 수요 증가 -> 미국 셰일발 원유 생산 증가 -> 해양플랜트 투자 사이클. 이후, 공급 과잉에 따른 장기 저유가 구간에 머물렀었다. 특히, 과거 해양 플랜트 투자 사이클 당시, 중동과 미국의 경쟁적인 증산으로 인해 해양플랜트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장비의 모듈화 생산 등 BEP 레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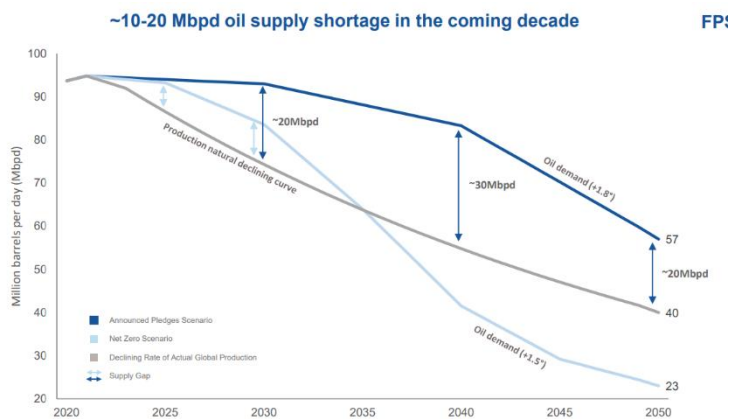
향후,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누적된 과소 투자 + 현재 주요 원유 생산지역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생산 움직임은 해양 부문의 투자 사이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지역별 신규 유정 투자시 필요한 BEP 레벨 및 탄소배출량 등



자료: Rystad Energy, Trans Ocea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원유 시장은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자료: IEA, Rystad, SBM offshor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해양부문 투자 – 심해 위주

글로벌 업스트림 투자액 22년 대비 11% 증가

Shell과 BP 등 전통에너지 업체들은 기존에 목표로 했던 신재생에너지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시기를 늦추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IEA에 따르면, 23년 글로벌 업스트림 투자금액은 528 Bill\$로 22년 대비 11% 정도 증가해 15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클레이즈는 해양 시추 허가건수가 10년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반면, 해양 부문 시추 및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선박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성장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드 맥킨지는 해양부문에서도 심해시추 부문위주로 해양부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멕시코만, 남미 그리고 서아프리카와 지중해 일부 지역이 전체 해양 부문 투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글로벌 주요 해양시추 지역 현황

Golden triangle UDW demand is ascend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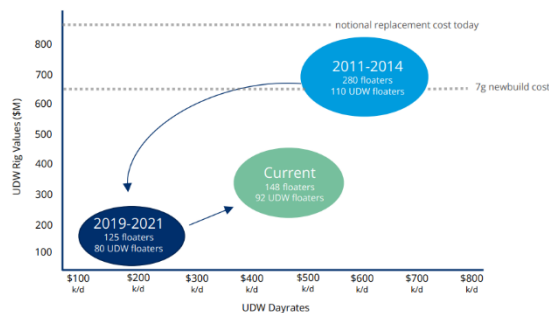
Americas and West Africa comprise 70 UDW rigs (75% of global UDW demand), with visible requirements for 10-plus incremental units through 2024.



자료: Petrodata, Nobl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회복되고 있는 드릴십 사용량

Unprecedented industry setup



Present Characteristics

- > >90% utilization, \$400-\$500 k/d dayrates, climbing
- > Limited sideline capacity, newbuilds far off the radar
- > Driller equities trading <50% of replacement

Prior Upcycle Characteristics

- > >90% utilization, \$600-\$650 k/d peak dayrates
- > ~200 floater newbuild orders 2004-2014
- > Driller equities frequently trading above replacement

13 Source: Petrodata, Noble

자료: Petrodata, Nobl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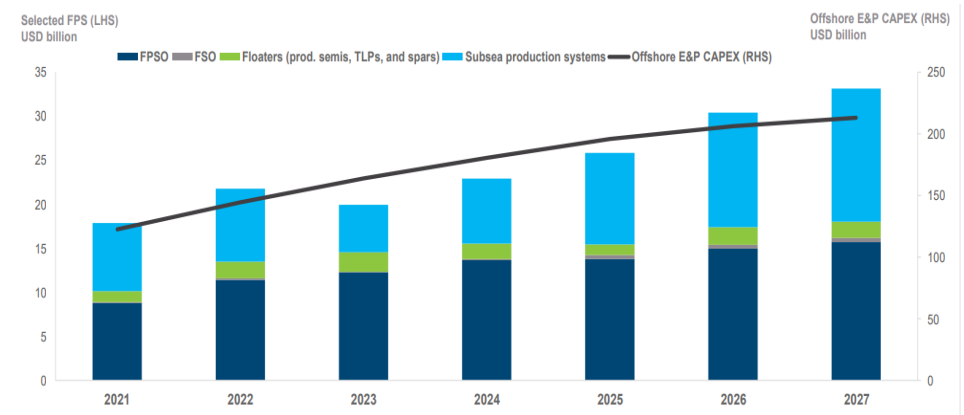
부문별 순서대로 회복중인 해양부문 시황

순차적으로 회복중인
해양부문 시황

시추 시장의 회복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의 재고도 감소하고 있다. 작년말 3척이었던 드릴십 재고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1척씩의 재고를 매각함에 따라서 1척의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화오션이 보유 중인 1척의 재고는 리세일 혹은 한화오션이 운용할 예정이다.

해양시추 증가 -> 해양시추 용선업체 용선료 상승 -> 드릴십 재고선 매각 및 미가동 드릴십 재가동 -> 해양 관련 장비사 매출 회복 -> FPSO 및 FLNG 등 생산설비 발주 증가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10. 부문별 해양 투자 전망



자료: IHS Markit, Mis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I. 지역별 해양플랜트 투자현황

시추 → FPSO 설비 투자

시추와 함께 FLNG 및 FPSO 시장의 회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남미의 Petrobras주도로 FPSO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브라질향 매출 비중이 높은 FPSO 업체인 미쓰이 해양개발의 수주도 발맞추어서 늘어나고 있다. 미쓰이 해양개발의 경우, 1H23의 수주잔고는 \$ 7,853 Mill로 과거 해양 플랜트 전성기의 \$ 8,981 Mill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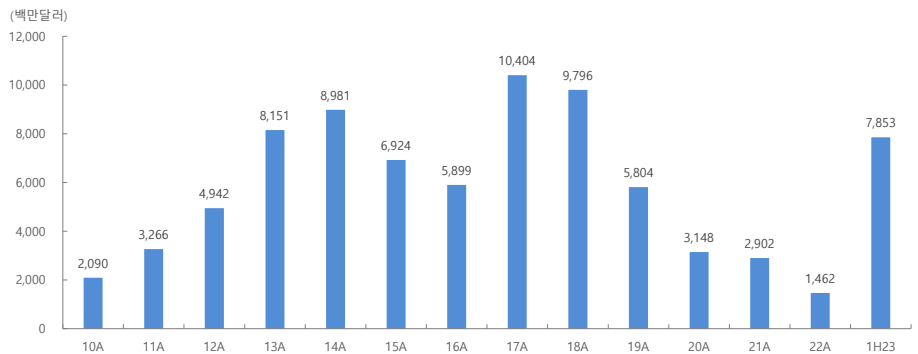
SBM Offshore는 향후 2~3년간 23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FPSO 수주 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2023 ~ 2030 FPSO 예상 투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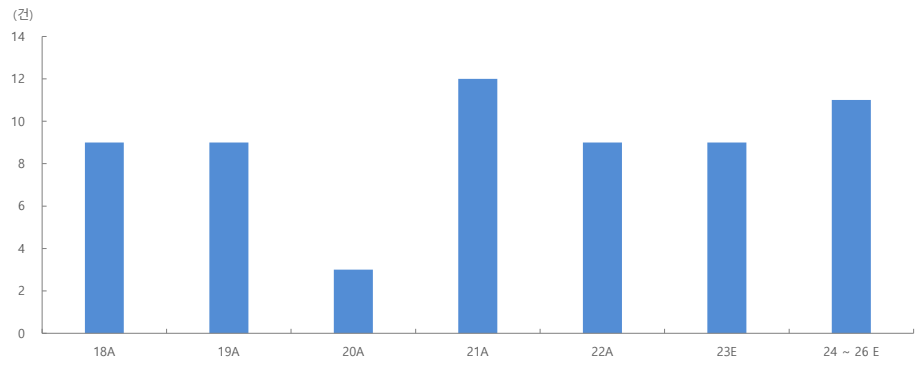
자료: Rysta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미쓰이 해양개발 수주잔고 추이



자료: Mode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 18년 이전 수주잔고는 엔/달러 환율 110 가정

그림 13. 연도별 FPSO 수주 전망



자료: SBM Offshore Market Intelligenc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내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투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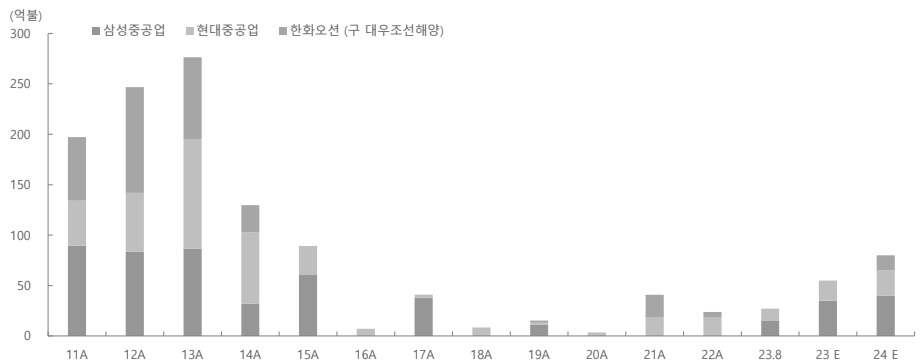
국내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투자 회복에 따른 수혜 전망

국내 피팅사중 하이록코리아는 과거 해양플랜트 사이클에서 해양부문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다. 하이록코리아는 해외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도 수주한 이력이 있지만, 주로 국내 조선사의 해양 플랜트 수주로 수혜를 받았었다.

국내 조선 3사의 경우, 해양부문 시장 회복과 함께 신규 수주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삼성중공업은 ZLNG 수주, 현대중공업 FPU 수주가 있었다. 하반기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각각 1기의 해양플랜트 부문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한화오션도 내년에는 약 1건 정도의 FLNG 수주가 기대된다.

내년에도 각 사별 1~2건의 신규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조선 3사의 해양부문 신규 수주 규모는 23년 50억불, 24년 약 73억불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과거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가 200억 ~ 300억불에 달하던 것에는 부족하지만, 전방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록 코리아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4. 국내 조선 3사 신규 수주 추이 및 전망



자료: 각 사 IR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II. 실적 추정

23년 매출액 1,976억원, 영업이익 487억원 전망

23년

매출액 : 1,976억원,

영업이익 : 487억원

반도체 부문의 업황 둔화에 따라 반도체 부문 매출 저하를 예상한다. 다만,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매출이 성장이 나타나는 가운데 조선 및 해양 부문의 매출 회복에 따라 23년, 24년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BP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이 늦춰짐에 따라 해당 부문의 매출도 재차 성장세를 띌 것으로 전망한다.

23년 예상 매출액 : 1,976억원, 영업이익 487억원, 당기순이익 430억원을 전망한다. 23년 혹은 24년도에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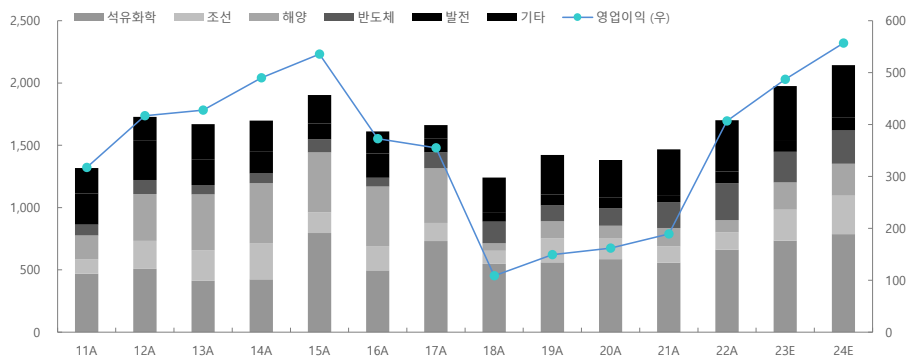
그림 15. 하이록코리아 부문별 실적 전망

(단위: 억원)

	11A	12A	13A	14A	15A	16A	17A	18A	19A	20A	21A	22A	23E	24E
석유화학	468.3	507.3	412.7	424.7	795.1	495.9	730.8	548.0	559.9	585.9	557.6	662.1	734.9	786.4
조선	117.1	225.5	243.9	289.5	167.4	194.8	146.2	105.6	193.3	170.0	132.1	140.5	249.0	309.0
해양	190.3	375.8	450.2	482.6	481.3	478.2	438.5	59.6	136.4	98.1	146.7	96.4	219.0	257.0
반도체	87.8	112.7	75.0	77.2	104.6	70.8	127.9	174.0	127.9	139.6	205.4	297.8	245.0	267.0
발전	248.8	319.4	206.3	173.7	125.5	194.8	109.6	70.8	88.1	85.7	58.7	92.4	94.0	106.0
기타	204.9	187.9	281.4	250.9	230.2	177.1	109.6	283.3	316.9	302.6	366.8	411.8	434.0	418.0
영업이익(우)	317.2	416.9	427.8	489.9	535.9	372.7	355.2	108.5	149.2	161.7	189.2	407.0	487.0	5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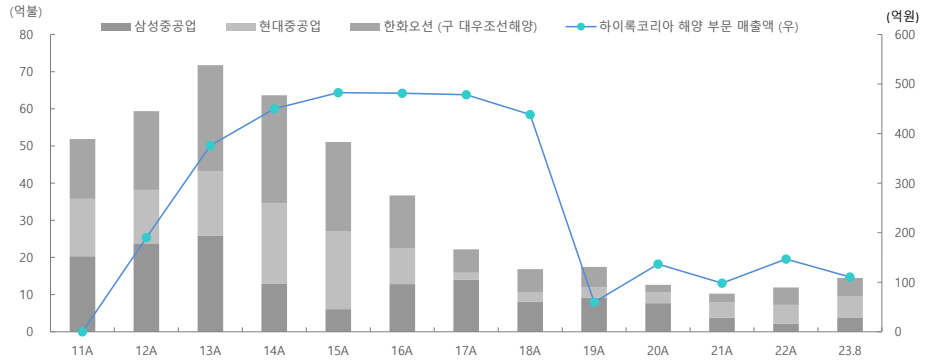
자료: 하이록코리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6.하이록 코리아 부문별 실적 전망



자료: 하이록코리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7. 국내 조선 3사 해양플랜트 수주잔고와 하이록코리아 해양 부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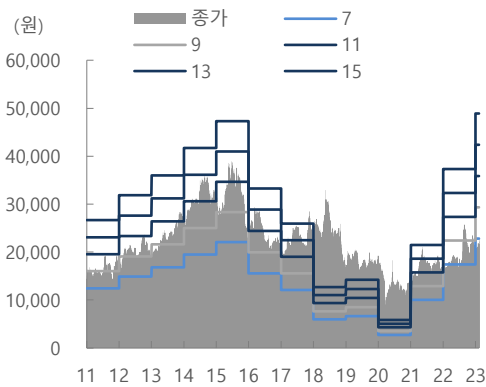
자료: 각 사 IR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8. 하이록코리아 역사적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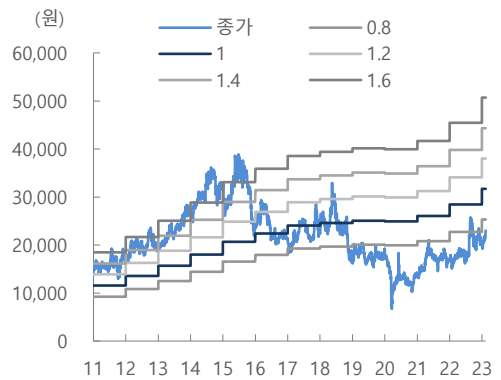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9. 하이록코리아 P/E 밴드



자료: Data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0. 하이록코리아 P/B 밴드



자료: Data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재무제표

	2020A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1,382	1,467	1,829	1,976	2,143
매출원가	995	1,048	1,192	1,226	1,318
매출총이익	387	420	636	750	825
판매비와관리비	225	230	229	262	268
영업이익	162	189	407	488	557
영업이익률	11.7	12.9	22.3	24.7	26.0
EBITDA	214	237	455	533	602
영업외손익	-60	71	49	63	63
관계기업손익	0	0	0	0	0
금융수익	37	66	72	66	66
외환관련이익	0	0	0	0	0
금융비용	-63	-2	-25	-5	-5
외환관련손실	46	2	25	4	4
기타	-34	7	2	2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02	260	456	551	620
법인세비용	-36	-64	-112	-121	-136
계속사업순손익	65	195	344	430	484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5	195	344	430	484
당기순이익률	4.7	13.3	18.8	21.8	22.6
비배지분순이익	12	0	5	25	28
지배지분순이익	53	195	339	405	45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0	0	0	0	0
기타포괄이익	-3	23	50	108	236
포괄순이익	62	218	393	538	719
비배지분포괄이익	12	3	4	31	42
지배지분포괄이익	50	215	389	507	678

	2020A	2021A	2022A	2023F	2024F
EPS	411	1,515	2,634	3,127	3,543
PER	32.7	11.1	7.8	8.4	7.4
BPS	24,224	25,318	27,705	31,634	34,814
PBR	0.6	0.7	0.9	0.8	0.8
EBITDAPS	1,574	1,743	3,344	4,117	4,683
EV/EBITDA	1.5	2.3	3.4	2.4	1.6
SPS	10,151	10,779	13,432	15,261	16,669
PSR	1.3	1.6	2.0	1.7	1.6
CFPS	1,902	2,229	3,847	4,405	4,974
DPS	500	500	600	600	600

	2020A	2021A	2022A	2023F	2024F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8	62	246	8.1	8.4
영업이익 증가율	8.4	17.0	115.1	20.0	14.1
순이익 증가율	-52.1	199.6	76.0	25.1	12.5
수익성					
ROC	5.5	8.1	17.0	19.8	22.2
ROA	4.3	5.1	10.3	11.4	11.8
ROE	1.6	5.8	9.4	10.3	10.6
안정성					
부채비율	96	9.1	8.4	8.7	9.9
순차입금비율	-46.4	-50.6	-48.4	-51.0	-54.5
이자보상배율	133.7	6,748.2	3,916.9	0.0	0.0

자료: 하이록코리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0A	2021A	2022A	2023F	2024F
유동자산	2,659	2,816	3,147	3,513	3,983
현금및현금성자산	383	661	553	599	69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77	367	446	480	518
재고자산	729	681	849	918	996
기타유동자산	1,170	1,107	1,298	1,517	1,772
비유동자산	992	982	972	974	975
유형자산	722	708	707	709	711
관계기업투자금	0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270	274	265	265	264
자산총계	3,651	3,798	4,119	4,487	4,958
유동부채	204	213	280	344	44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4	147	177	182	189
차입금	0	0	0	0	0
유동성채무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49	66	103	162	253
비유동부채	116	104	38	14	5
차입금	0	0	0	0	0
전환증권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16	104	38	14	5
부채총계	320	317	318	358	447
지배지분	3,298	3,447	3,772	4,096	4,476
자본금	68	68	68	64	64
자본잉여금	238	238	238	238	238
이익잉여금	3,094	3,234	3,558	3,886	4,265
기타지분변동	-103	-94	-93	-93	-92
비배지분	33	34	30	32	35
자본총계	3,331	3,481	3,801	4,129	4,511
순차입금	-1,545	-1,762	-1,841	-2,105	-2,459

	2020A	2021A	2022A	2023F	2024F
영업활동 현금흐름	237	283	197	371	412
당기순이익	65	195	344	430	484
비현금항목의 가감	194	108	180	140	156
감가상각비	53	48	48	45	45
외환손익	31	-19	15	-10	-10
지분법평가손익	0	0	0	0	0
기타	110	79	117	105	120
자산부채의 증감	10	4	-278	-130	-142
기타현금흐름	-31	-24	-48	-70	-85
투자활동 현금흐름	-29	44	-239	-271	-308
투자자산	-15	1	0	0	0
유형자산	-20	-31	-47	-47	-47
기타	5	73	-193	-225	-262
재무활동 현금흐름	-58	-64	-64	-81	-77
단기차입금	115	0	0	0	0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유상증자	0	0	0	-4	0
현금배당	-73	-64	-64	-77	-77
기타	-99	0	0	0	0
현금의 증감	137	278	-107	45	99
기초 현금	246	383	661	553	599
기말 현금	383	661	553	599	698
NOPLAT	104	142	307	381	435
FCF	136	155	307	378	431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박장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하이록코리아(01303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제시일자	23.09.14	23.08.21	23.08.08	23.05.21	23.02.21
투자의견	Buy	6개월 경과	Buy	Buy	Buy
목표주가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과리율(평균%)		(24.53)	(30.15)	(31.01)	(35.52)
과리율(최대/최소%)		(21.14)	(14.71)	(16.86)	(28.29)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평균%)	과리율(최대/최소%)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평균%)	과리율(최대/최소%)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평균%)	과리율(최대/최소%)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평균%)	과리율(최대/최소%)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기준일자:20230910)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	Underperform(매도)
비율	91.6%	8.4%	0.0%

산업 투자의견

- Overweigh(비중확대)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 Underweigh(비중축소)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기업 투자의견

- Buy(매수)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상승 예상
-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주가 변동 예상
-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하락 예상